제 90호 새시대 인재 (1) 3A 식으로 산다

가끔 신세대 학생들은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한(dangerous) 일을 기피한다고 언짢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 국민 소득이 200불에서 10,000불로 비약하는 동안 지금 기성 세대는 3D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피땀의 열매를 먹고 자란 신세대가 비록 백수로 놀지언정 3D 직업은 안 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괘씸하고 배부른 수작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만 일어난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이 배은망덕하고 나약해진 탓을 과보호에 돌려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현상은 엄격한 가정 교육하기로 유명한 독일도 그렇고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를 이룬 일본도 마찬가지이고, 자유분방한 미국의 젊은이도 한결 같습니다.

3D는 기피해야 마땅합니다. 일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해서가 아니라 3D 일은 대개 단순 반복적인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인간의 몸을 기계처럼 혹사해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창의력은 기계적인 반복 작업에서 나오기 어렵습니다. 신세대는 인간패러다임을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3D보다 신나고 도전적이고 몸으로 표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심신의 균형을 위해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신선한 휴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다른 가능성을 접어놓고 3D일만 하는 것은 금주고 돌 사는 격입니다.)

21세기에는 3D대신 3A 식으로 살아야 생존력이 높습니다. 3A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Anytime, Anywhere, Anyone) 만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죽어라 영어를 배우는 이유도 인터넷 세상에서는 80%의 정보가 영어로 공유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첨단 벤처인들은 거리를 다닐 때에도 한 손에는 노트북, 다른 손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며 3A로 일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의 속성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밤 12시일 때 미국의 워싱턴은 오전 10시입니다. 키보드 몇 개만 누르면 즉시에 지구 반대편의 사람에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근무라는 틀에 묶이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은 접속 시간이 7초를 넘기면 고객을 잃는다는 말처럼 시간을 다투는 경쟁이기도 해서 접속이 편리한 때를 골라 일하는 것이 능률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만이 아니라도 신세대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에도 일을 하고, 일하다가 머리를 쉬고 싶으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다시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컴퓨터 앞에 앉는 생활에 익숙합니다.

산업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사장과 상사가 시키는 일을 불평불만 없이 성실히 해내는 사람이었다면 지식기반시대의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가 미치도록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머리 속에 돌아가는 아이디어에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게 편하지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물리적 시간에 맞추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교수님께서도 3D를 연상시키는 숙제는 가능한 요구하지 마시고 강의와 수업을 3A라는 기본에 맞춰 주시면 좋습니다.

ⓒ **조벽**, 2000